나이 들기 쉬운 건조한 환절기엔

어린 얼굴로 꽉 잡아주는 모공보습

AQUA FORCE

EXTRA LOTION

ORBIS

김치 인류무형유산 된다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삼성·두산 "1차전 잡아라"

30㎞ 상공 올라 지구 2시간 감상 8000만원 내세요

지상 약 30㎞ 상공에 거대한 풍선을 띄워 지구 대기의 끝을 체험해 보는 스릴 만점 우주여행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미국 기업 월드뷰엔터프라이즈가 개발 중인 초대형 헬륨가스 기구와 탑승용 캡슐(비행선)의 모형도를 공개했다. 승객들은 풍선에 매달린 비행선 안에서 약 2시간 동안 거대한 창문을 통해 푸른 노리처럼 펼쳐지는 지구 외면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자동차 축구장 크기만한 이 기구에는 한 번에 8명까지 탈 수 있다. 티켓 가격은 7만5000달러(약 7942만원) 정도다. 풍선 기구는 현재 막바지 실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6년께 탑승 가능하다.

/AP 연합뉴스

블랙아웃 막을 '마법배터리' 뜬다

집에서 전기 만들어 비상시에 쓰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ESS' 눈길

공무원 A씨는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공부터 에어컨 가동을 줄이거나 아예 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십만 원씩 나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에어컨 스위치에 쉽게 손이 가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걱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삼성·LG·SK 등 대기업들이 가정용을 포함한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ESS) 분야에 속속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LG 등 대기업 잇따라 개발

ESS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를 뜻하는 말로, 일반 휴대전화용 배터리를 수천~수십만 개 분량으로 대형화한 것. 대형화한 배터리를 전력 계통에 연결하면, 이른바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전력 소모 최고치 돌파 현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가정에 설치해 비상시 정전 대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값싼 심야전기 이용 및 가정용 태양광 등 자가발전설비에도 이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삼성SDI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 10월 일본의 니치콘사에 가정용 ESS 독점 공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 독일 카코사와 ESS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독일 유니코스사와 미국의 익스트림파워사, 이탈리아의 로셰니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전 세계에서 ESS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 CNS는 지난 7월 태양광발전소에 ESS를 구축해 발전소의 전력 생산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을 출시했다.

LG CNS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개발했고, LG솔라에너지의 태안 태양광발전소에 시험 적용해 실증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SK C&C도 강릉시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스마트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며 ESS를 적용했다. 100kW급 친환경 리튬이온 ESS를 구축해 낮에 생산된 여분의 전기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 야간에 활용, 실질적인 에너지 독립성 및 탄소 배출 제로화를 구현했다.

유진기업은 유진에너팜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미 가정용 하이브리드 타입 4kwh급 시제품은 완성했고, 100kwh급 빌딩 및 산업용 ESS 시제품도 올해 내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6월 중국 선양에 현지 법인인 '심양유진BESS상무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최근 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업체와 현지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을 논의 중이며 올해 말 미국 일리노이 주정부의 ESS 보급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여름 원전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전력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며 에너지 관련 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ESS가 고가 배터리를 사용해 도입 가격이 높아 본격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 정책 변동에, 전기요금 상승 등 시장 환경이 바뀌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기자 kess1@metroseoul.co.kr

다음달 중순부터 초겨울

12월엔 서해안에 폭설

11월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올 전망이다.

12월에는 서해안 지방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3개월·1개월 전망'을 통해 11월 중순부터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23일 밝혔다.

11월 초순에는 일시적인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의 변화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11월 중순부터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평년(4~11도)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5~30㎜)보다 적을 전망이다.

11월 하순에는 기온이 평년(2~10도)보다 더 떨어지고 강수량도 평년(9~23㎜)보다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12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3~6도)보다 낮은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고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월에는 주기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 변화가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예상된다.

'곶감이 내린다'는 상강인 23일 충북 영동에서 한 주민이 곶감 건조장에 감을 내걸고 있다. /뉴시스

◆오늘부터 주말까지 반짝 추위

한편 기상청은 24일의 경우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승리기자 gross1004

"박대통령 불공정 대선 수혜자…책임져야"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민주당 문재인(오른쪽) 의원이 23일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기재위원회 회의장을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장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국정원 선거 개입' 포문…"왜 자꾸 불복 말해 국민·야당 입 막나"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3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논란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 기관들의 대선 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왜 자꾸 대선 불복을 말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면서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 등 몇몇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형 포털, 트위터 게시판 등에 정치적 글을 올린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4명이 아닌 블로그 2명, 트위터 5명, 오유 8명 등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15명에 달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e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 402개를 확보하고 미국 트위터 본사의 서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법무부 측은 "402개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줄이자"는 입장을 보인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댓글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 등을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현조기자 mlyon@metroseoul.co.kr

이력서로 신상 터는 기업들

기자 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부모님의 직업·직위·연봉, 본적, 자가 주택 또는 전세 여부 체크 필수.

결혼정보회사 회원 신청서가 아니다. 하반기 공채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력서 항목이다. 공란으로 비워두면 지원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친절히 안내창까지 뜬다. 각종 취업 카페에서는 구직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취업은 내가 하는데 왜 부모님 스펙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주택의 전세·월세 여부를 묻는 것도 황당하다.

구직자 연령은 20대 중후반에 몰려있다. 이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로 현역에서 은퇴할 시기다. 한 취업 준비생은 "50세 넘어서 직장 다니는 부모님이 얼마나 계시겠느냐"면서 "국세청 공무원 자녀면 그냥 합격일 것 같다"고 씁쓸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기업들의 구직자 신상 털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구직자들은 인터넷에서 원서를 작성하기 전 정보수집 동의란에 체크를 하게 된다. 이때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와 선택적 정보로 나뉘는데 기업들은 선택적 정보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서 접수가 안 된다고 공지한다.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가 차후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없다.

구직자들은 취업 시장에서 철저한 을이다. 서류 접수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구직자의 부담을 늘리고 기업의 정보 관리 비용만 크게 만든다. 채용에 꼭 필요한 정보라면 면접 대상자에게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일까. 소모적인 구직자 신상 털기를 줄이는 채용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

서울대병원 6년 만에 총파업…곱지 않은 시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노조의 집회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선택진료제 폐지 ▲임금 총액 13.7%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사안에 대해 40여차례 협상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노조는 연건동 서울대병원, 강남 건강검진센터,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이날 오전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손진영기자 son@

日, 독도영유권 영상 유포…정부 "즉각 삭제하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며 또다른 도발을 한 것으로 23일 드러나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며 동영상 즉각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국제홍보하는 것은 결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담은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16일 '어리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외무성 동영상 홍보 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동영상에는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이 동영상 조회수는 23일 오전 6600여회를 넘어섰다. /김민준기자

"KBS 고위임원 차량 구입·유지비 5년간 21억"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놓고 열띤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영방송으로서 방송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8개월 동안 9시 뉴스 첫 소식으로 대통령 관련 보도가 방송된 경우가 30번에 달했다"면서 "전두환 군부정권을 찬양했던 '땡전뉴스'와 다를 바 없는 '땡박뉴스'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최근 5년간 KBS가 길환영 사장을 비롯, 임원들이 타는 국산 고급 차량 7대를 구입하거나 렌트, 유지하는 데 21억원의 비용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역시 KBS의 경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KBS의 적자폭이 2011년 650억원, 지난해 38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6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영기자 ljy403@

뉴스 & 뉴스

소규모 떡집도 주문배달 허용…인터넷 홍보 가능

● 소규모 영세 떡집에도 시중의 3분의 1 가격인 정부 양곡 매입과 근거리 주문 배달이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최근 열린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서 앞으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제조시설이 16㎡ 미만인 떡집도 정부 관리 양곡 매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홍보와 근거리 배달 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떡 판매의 70~80%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데도 소규모 떡집들은 인터넷 홍보나 배달 판매가 금지돼왔다.

노르웨이 "한국 주도 녹색성장기구 지원 일시중단"

● AP통신은 노르웨이 정부가 한국 성사에서 추진한 첫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대한 기여금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라르스 회케 라스무센 GGGI 회장이 15회 출장비로 18만 달러(약 1억9000만원)를 지출한 것에 대한 과다 지출 논란이 일자 GGGI에 대한 추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여금 1000만 달러(약 106억원) 지원을 중단했다.

벌써 몇 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야당 측과 마찰을 빚어 23일 오후 국감에 불참한 가운데 김용환(오른쪽)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이동익(왼쪽) 한국투자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대기 중 시계를 가리키며 대화하고 있다.

"국회에 쌓인 경제활성화 법안 100여 건 처리 좀…" 현오석 부총리의 한탄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 활성화 대책 실행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등을 포함해 1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 시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외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있다.

현 부총리는 "각종 대책이 적기에 집행돼 최근 경제 회복 움직임이 확고한 추세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경제계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ICT R&D 중장기 전략'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타 분야의 산업과 ICT의 융합을 촉진하고, 12조9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7조7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정보 보호 등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기초·원천 융합 등 각 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업'과 '성장', '글로벌화'에 이르는 ICT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학관기자

김치·김장문화 인류무형유산 된다

유네스코 등재권고 판정
12월 확정…한국 총 16건

김치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23일 문화재청은 무형유산위원회 심사보조기구가 오는 12월 2~8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를 앞두고 김치와 김장문화에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전심사에서 등록이 권고된 문화유산이 본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김치와 김장문화는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공식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은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등을 합쳐 모두 16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조현미기자 sacnme@

보직 없어 자랑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부장님'

한국거래소의 부부장 이상 간부급 직원 중 절반가량이 보직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부장(D1)급과 부부장(D2)급 직원 117명 중 56명이 보직 없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장급은 36명 중 47.2%인 17명이, 부부장급은 81명 중 48.1%인 39명이 보직이 없다. 이들 중 차량 관리, 시설관리, 예비군 민방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해준기자

"잘 살아" 서울대공원 관계자가 23일 서울 강서구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대십 서태계 복원사업 일환으로 인공증식한 꿩 50마리를 야생 방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 고등학교서 결핵 138명 집단감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고등학교에서 결핵 환자 140여 명이 발견돼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서울 강남구 소재 A고등학교에서 결핵 양성반응을 보이는 학생 1명을 확인하고 전교생·교직원 1861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138명이 결핵에 감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학생 3명, 교사 2명 등 총 5명이다.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아직 발병하지 않은 잠복 결핵 감염 환자는 133명이었다. /김유리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희

나일론 스타킹 발매 시작
미국의 듀폰사가 1939년 10월 24일 윌밍턴에서 나일론 스타킹을 첫 시판했다. 이 상품은 뉴욕 만국박람회의 최고 인기 품목이었고 이듬해 뉴욕에서 판매되자마자 여성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불과 몇 시간 동안 400만 켤레의 스타킹이 팔렸다. 나일론을 발명한 천재적 유기화학자 윌리스 캐러더스 박사는 나일론이 이토록 성공적인 삶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베이비부머봉사단 '수원엥콜색소폰동호회'

색소폰 선율에 어르신들 어깨춤이 '절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원일) 베이비부머봉사단으로 위촉된 수원엥콜색소폰동호회(단장 임건택)는 지난 19일 수원 보훈요양원에서 색소폰 공연을 펼쳤다.

회원들은 경기연주회에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뽐내 박수갈채를 받았다.

요양원은 평소와 달리 떠들썩한 분위기로 모두가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어르신들은 연신 흥겨운 리듬을 타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2부에서는 어르신과 봉사단이 함께 노래자랑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색소폰 공연 봉사자가 나란히 서서 합주를 선보였다.

특히 색소폰 동호회원들은 추억의 명곡(7080세대)을 색소폰 특유의 선율로 선보여 관객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봉사단은 색소폰 연주를 통한 음악 봉사로 시민 곁에서 잠잠하던 도움이 되고자 2009년 창단해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지속적인 공연 봉사활동을 해왔다.

수원엥콜색소폰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보훈요양원에서 색소폰 공연을 하고 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봉사단은 테너 색소폰, 알토 색소폰, 일렉기타로 구성된 동아리로서 경력 3년 이상 악기 연주자가 참여해 전문 자격 요건을 갖췄다.

봉사단은 작은 음악회나 거리 예술 등 각종 문화 행사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지난 5~6일 제1회 경기도나눔대축제에서는 자원봉사단체, 유관 기관 등 지역주민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 공연 봉사로 열광적 환호를 받기도 했다.

수원엥콜색소폰동호회 임건택 단장은 "50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삶을 즐겁게 하고 젊게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며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다"고 자원봉사 활동의 소중함에 대해 말했다.

한편 베이비부머봉사단은 증가하는 50~60대 은퇴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적·지속적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 간·계층 간·지역 간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봉사단이다.

전문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베이비부머봉사단에 대한 문의는 1600-1090으로 하면 된다. /김유리기자

홈페이지(ems.or.kr)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봉사활동을 위해 베이비부머봉사단을 모집 중이다. 또 한 달 1회당 자원봉사 4시간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증서도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난해 1000억씩 더 번 美 갑부들

톱10 CEO들 증시호황 덕
1위는 22억달러 저커버그

미국 증시 호황으로 마크 저커버그(사진)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의 수장들이 돈방석에 앉았다.

2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은 기업 지배구조 평가기관인 GMI의 2012년 CEO 보수 조사 보고서를 인용, 미국의 톱 10 CEO가 지난해 최소 1억 달러(약 1060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전했다.

소득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린 저커버그는 22억7800만 달러를 챙겼다.

이어 미국 최대 천연가스관업체인 킨더모건의 리처드 킨더가 11억167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3위는 시리우스XM라디오의 멜 카마진(2억5590만달러), 4위는 리버티 미디어의 그레고리 마페이(2억5400만달러)가 차지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1억4300만 달러로 5위였다.

GMI에 따르면 상위 10위권에 있는 CEO의 보수가 1억 달러를 넘고 10억 달러 이상을 받은 CEO가 2명 이상 나온 것은 조사 이래 처음이다. GMI의 보고서는 북미 지역 2259개 기업 CEO의 최근 2년간 급여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기본급에 성과급과 스톡옵션 등이 포함돼 있다.

USA투데이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CEO들의 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미기자

명문 칭화대 입학한 13세 신동

metro HongKong

중국 산시성의 13세 신동이 칭화대에 합격해 많은 중국 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22일 메트로 홍콩이 전했다.

신시성 머쉬(푸現)현 출신의 관수카이는 2세 때 덧셈·뺄셈·곱셈·나눗셈을 마스터했고 5세에 초등학교 입학, 7세 때 중학교 입학에 이어 결국 13세에 칭화대 학생이 됐다.

지난 8월 그는 칭화대 입학 수속을 밟았다. 안경을 쓰고 중학생의 얼굴을 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말했다. 이 장면을 본 천지닝 칭화대 총장은 "말이나 행동 모두 또래와는 전혀 다른 어른같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관수카이가 이렇게 신동으로 성장한 데는 어머니 왕징의 덕이 컸다. 왕징은 중학교 물리 교사로 아들과 공부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 왕징은 아이에게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아들과 함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했다.

왕징은 밤새 수업 준비를 했어도 다음날 아이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가 솔선수범하는 것을 본 관수카이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도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 있으면 두 말 않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 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져 관수카이는 시계 알람을 맞추지 않고도 일어난다.

왕징은 "공부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많은 부모들이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과정을 무시한다"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성년 연령 18→16세 추진 논란

metro France

프랑스가 조만간 성년 선고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출 전망이다.

성년 선고란 성년이 되기 전 미성년자에게 성인의 권리를 주는 것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1일 프랑스 가족부 장관 도미니크 베르티노티는 새로운 가족법 개정을 통해 성년 선고를 16세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 성년 선고가 16세로 낮춰질 경우 16세부터 지방선거권이 주어진다. 또한 부모의 허락 없이도 회사를 조직할 수 있으며 자신의 파업 및 직업과 관련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성년 선고를 꼭 16세로 낮춰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것.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회학자 미셸 피즈는 "미성년의 정치의식은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다. 16세의 경우 학생노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이들의 능력은 확인됐는데 왜 그저 내버려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프랑스인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리 멘델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S "구글이 하면 우리도"

구글 글라스 맞서 MS 글라스 개발 중 시제품 제작 끝내고 테스트 단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눈앞의 인터넷'을 표방하며 구글 글라스에 맞서 'MS 글라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소식통을 인용, 최근 MS가 구글 글라스와 유사한 안경형 기기의 시제품을 만들어 세부 기능을 테스트 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MS는 아시아에 있는 부품업체에 카메라 등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주요 부품을 요청한 상태다.

이 소식통은 "MS가 향후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ing device)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드웨어 부문까지 만들기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MS의 시제품이 테스트 수준에서 끝날지 대량 생산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손목시계형, 플렉시블 등 컴퓨터를 액세서리처럼 착용하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MS가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시제품 개발은 MS가 자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작, 제조업체로까지 변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장조사업체 ABI리서치는 오는 2018년까지 입는 컴퓨터 시장의 연 매출이 4억8500만 달러(약 51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구글 글라스는 눈을 통해 콘텐츠를 접하게 해주는 3차원 안경으로 뛰어난 사진 촬영과 음성인식 기능을 자랑한다.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회의에서 처음 소개돼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구글 글라스는 내년 중 시판될 예정으로 가격은 1500달러(약 170만원) 정도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600kg짜리 운석 러시아 첼랴빈스크주 체르바쿨 호수에서 건져내 최근 역사박물관으로 옮겨진 무게 600kg의 거대 운석을 22일(현지시간) 관람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이타르타스 연합뉴스

日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취소 항소 1분 만에 기각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등의 합사 취소 요구가 2심 재판부에서도 기각됐다.

23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 재판부는 살아있는 데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88)씨와 한국인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9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은 개정한지 1분도 안돼서 끝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는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관용적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주)콜렉트대부 [2011-서울강남-0084]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Consumer Loan Finance Association 회원번호 A00024

신용대출의 기본은 친절입니다

지금, 전국 10개 지점에서 친절한 루스모 를 만나보세요

☑ 인터넷대출 신청 O.K ☑ 지점방문대출 신청 O.K
☑ 모바일대출 신청 O.K ☑ 전화대출 신청 O.K

루스모
수시출금서비스

365일 (오전 9시 ~ 오후 9시)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통으로 필요한 자금을 편리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계약방법과 신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연 39% 이내 (연체금리 연 39% 이내, 이자외 추가수수료 일체 없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역삼동 705-9 삼흥빌딩 4층) 등록시도 명칭 : 서울시 강남구청(대부업 담당 02-2104-1981)
도봉구청 부산시 부산진구청 인천시 부평구청, 대전시 대전시청 대구시 중구청, 광주시 동구청 제주도 제주시청 경기도 수원시청

일 오 육 육 탱~탱
1566-1010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루스모 ▼ 지금 검색창에 루스모를 쳐보세요
www.lusmo.co.kr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2035.75	(-20.37)
코스닥	525.38	(-6.51)
금리	2.78	(-0.04)
환율	1055.80	(-5.00)

아파트 주민 케이블TV 해지 쉬워진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케이블TV에 단체 계약을 한 경우 해지가 보다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TV 단체 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 방식과 해지 절차가 일부 미흡해 시청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체 계약이란 케이블 TV 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TV 공동수신계약으로 올해 8월 말 현재 907만 가구 중 단체가입자는 217만 가구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별 계약과 달리 케이블 TV 사업자와 관리사무소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특성상 개개인별 계약 내용을 제대로 고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향후 단체 가입자에게 연 2회 이상 우편·요금고지서 등의 방식으로 단체 계약의 내용, 요금 부과 절차, 해지 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재상기자 ljs0403@metroseoul.co.kr

뉴스&뉴스

렌즈 빵빵한 스마트폰 카메라
소니코리아가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3층에서 스마트폰 카메라의 편리함과 디지털 카메라의 프리미엄 성능을 동시에 선사하는 신개념 렌즈 스타일 카메라 QX 시리즈 2종 'QX100'과 'QX10'을 출시했다. /뉴시스

기업설비투자 '10조원 단비'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시작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투자 활성화 1~3단계 대책에서 발굴한 27조5600억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운데 10조3000억원이 투입될 5개 프로젝트가 이달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줄지어 착공된다. 이를 계기로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인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김현정기자

순상품 교역조건지수 개선

원자재 등 수입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순상품 교역조건지수가 7개월 연속 개선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순상품 교역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순상품 교역조건이란 수출품 한 단위로 몇 단위의 수입품을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실질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김민지기자

카드론·리볼빙 '공포의 눈덩이'

카드대출 상품 연체율 최대 9배 급등…잔액 6개월새 1조2000억 불어

카드론, 리볼빙 등 신용카드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달부터 금융 당국의 금리 인하 유도에 각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금리가 2~4%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대출 연체의 악순환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22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9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2.63%보다 0.28%포인트 오른 것이다.

특히 2012년 말의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었단 것에 비교하면 올 들어 연체율이 9배 넘게 급등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현금서비스 연체율은 3.42%로 지난해 말 3.24%에서 소폭 상승했다.

카드대출 잔액도 늘고 있다.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15조26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4조328억원보다 1조230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카드론 대출 잔액이 3510억원임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1년 새 연체율이 7배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리볼빙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의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결제성 리볼빙' 1.15%, '대출성 리볼빙' 3.53%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각각 0.13%포인트, 0.68%포인트 올랐다.

이 역시 지난해 말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0.09%포인트, 0.22%포인트)을 넘어선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카드대출 잔액과 연체율 급등은 두고 저신용 가계들의 살림이 그만큼 어려워진 탓으로 해석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지난 4월 구성해 8월 발표한 '카드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모범규준'이 다음달부터 적용되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가 자연스럽게 2~4%포인트 내려가는 효과가 나면서 일반 가계의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역효과로 저신용 가계가 고금리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지만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사마다 제각각이었던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대해 업권 공통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신용등급이 낮다고 대출에 제약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미국발 환율 추락 – 중국발 코스피 급락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 연기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23일 원·달러 환율이 전일보다 5.0원 내리며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1055.8원에 마감됐다. 코스피 역시 중국 긴축 우려에 전 거래일보다 20.37포인트(0.99%) 낮은 2035.75로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부실 CP에 투자권유 '제2동양증권' 금지

24일부터 증권사가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에 편입하지 못하게 된다. '동양 사태'의 여파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 부적격 등급의 계열 증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펀드, 투자 일임 재산, 신탁 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에 투자 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편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의 계열사 채권 판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동부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은 계열사 신용등급이 여러 단계 하향 조정될 경우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원래 계획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시행됐어야 했으나 당시 금융위가 유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이번에 시행된다.

/김현정기자 hjkim1@

국민연금 가입 길수록 기초 합산액 손해

보건부 예상액 분석결과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합산액 비율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이 100만원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내년부터 10년간 월 9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세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37만원을 받게 된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 총액 대비 받는 연금 합산액 비율은 6.6배가 된다. 반면 동일한 조건으로 25년간 가입했다면 이 비율은 3.7배로 떨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산 수령액을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가 불리하지 않다고 하지만,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등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하지 않고 2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으로 수익비를 계산하면 비슷하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며 "보험료와 합산 수령액을 비교한 수익비를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in@

연금복권520 제121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6조	613922
		4조	573207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414661
4등	100만원	각조	38036
5등	2만원	각조	574
6등	2000원	각조	50
7등	1000원	각조	9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갑회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865
2005년 1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다0641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0925-중-48518호

세바른병원의 척추 관절 클리닉

허리, 목 통증, 팔, 다리 저림 참지 말고 수술 부담 없는 비수술 치료법!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치료하세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 치료대상

- ✔ 허리, 목 척추관협착증
- ✔ 허리, 목 디스크
- ✔ 척추수술 후 재발된 통증
- ✔ 척추골다공증으로 인한 허리통증
- ✔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등으로 수술이 어려운 분
- ✔ 좌골신경통으로 인한 엉치, 다리저림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환자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세바른병원과 상의하세요!

지긋지긋한 허리, 목 통증 경막외내시경으로 치료하세요!

허리통증은 주로 디스크로 인한 염증과 부종 또는 척추관협착증으로 좁아진 신경관 등이 신경을 압박하여 유발되고 목 통증은 디스크가 노화되거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손상되어 수핵이 빠져나와 신경이나 척수를 누르는 경우 발생됩니다.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터질 듯 아파서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척추관협착증, 앉아 있으면 불편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되는 허리디스크와 주로 뒷목이 결리거나 팔 저림, 두통 등과 같은 목디스크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세바른병원의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이 같은 허리 통증과 목 통증의 원인을 내시경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며 시행할 수 있는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목디스크의 치료법입니다.

세바른병원의 진료시스템!

세바른병원은 척추 관절 중점 진료를 위한 의료진들이 힘을 합쳐 만든 척추 관절 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입니다. 퇴원 후에도 철저한 관리로 척추 관절질환의 재발을 막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진단장치를 통해 척추 관절 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첨단 검진기기를 통한 당일 입원에서부터 검사, 진단, 시술, 퇴원이 가능한 원스톱 케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척추·관절 행복은 Up 통증은 Down

척추질환 비수술로 간단하게!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국소마취하여 1.5mm 굵기의 관으로 내시경과 레이저를 넣어 직접 병변을 들여다보면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돌출된 디스크 부위에 직접 레이저를 쏘아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입니다. 미세 레이저는 염증부위를 꼼꼼하게 제거할 수 있고 치료가 어려운 신경근 주위 유착까지 없애 합병증 발생도 적습니다. 내시경으로 환부의 염증을 볼 수 있고 작은 병변까지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며 레이저로 제거하고 약물로 신경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고 부분 마취로 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으로 인해 수술이 힘든 환자들도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흉터가 거의 없고 시술시간도 30분 정도로 짧습니다. 사술후 1~2시간 정도 후 퇴원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점〉 사술 후 감염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재발될 경우가 있습니다.

세바른병원의 척추치료

비수술적 치료법	수술적 치료법
1. 경막외 신경성형술	1.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2.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	2. 최소침습 후방유합술
3. 고주파 수핵 감압술	3. 인공디스크 치환술
4. 프롤로 테라피	4. 척추뼈 성형술
5. 근육 자극치료	
6. 체외충격파 치료법	

세바른병원의 관절치료

비수술적 치료법	수술적 치료법
1. FIMS 요법	1. 연골결손환자에서의 자가골수 [illegible] 치료
2. 체외충격파	2. 관절내시경 수술
3. 프롤로 테라피	3. 인공관절 수술
4. 도수치료	4. 무릎 자가연골 이식술
5. 운동치료	5. 무릎 자가유래 연골세포 이식술

[진료문의]
1588-3094

강동점 ③호선 양재역 3번출구 300m

강서점 ⑨호선 증미역 3번출구 200m

강서점만 일요일진료 오전9시~오후5시

세바른병원 Se Barun Hospital

뉴스 & 뉴스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 23일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피아제의 엠퍼라도 쿠썬 울트라씬 미닛 리피터 착아주얼리 (가운데)가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연합뉴스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추진

●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취득세 영구 인하의 적용 시점을 지난 8·28 대책이 발표된 당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에 이 같은 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8·28 이후 집을 산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손현정기자

3분기 전월세 거래량 증가

● 부동산써브는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수도권과 지방의 전월세 거래량은 각각 20만8926건, 9만96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1.43%씩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현정기자

건축물 미끄럼방지 의무화

●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 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김민지기자

금융지주들 "우린 실적 4대천왕"

KB·신한·우리·하나 3분기 순이익 41% 증가 전망

KB와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지주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2분기 1조2000억원보다 4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8일 실적을 공개한 하나금융지주는 3분기 순이익이 3775억원으로 2분기보다 62.9%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자산건전성 개선에 따라 지난 2분기 대비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135억원 감소됐다"며 "금융 하락 등 자본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매매평가이익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과 대신증권 등이 하나금융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 각각 4만8000원, 5만원으로 제시했다.

KB금융의 실적도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25일 실적을 발표하는 KB금융지주의 순이익은 4163억원으로 2분기보다 무려 15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달 29일 실적을 발표한다. 경기 악화 속에서도 2분기 555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5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달 1일 실적을 발표하는 우리금융지주도 3071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지난 분기보다 10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순이익 급감은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하지만 3분기 들어 기업 리스크가 감쇄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회복됐다"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coji@metroseoul.co.kr

"선배님, 수능 골든벨 울려줘요!" 수능을 15일 앞둔 23일 이탈리아 조립식 브랜드 파리오로에가 서울 이화여고에 수능 골든벨을 세우고 피해들지 못기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4분기 입주량 "애걔!"

전국서 2만3013가구 예정 2009년 비해 반토막 수준

올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 2009년에 비해 '반 토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올 4분기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38곳, 2만301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4만9193가구에 비해 46.7%로 절반에도 못 미친 수준이다. 또 전년 동기 보다 11%가 감소하는 수준으로 최근 2005년 이후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다.

권역별 입주 물량은 ▲서울 13곳 5973가구 ▲인천 4곳 4240가구 ▲경기 15곳 8353가구 ▲신도시 3곳 4447가구 등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과 신원동, 우면동 등 SH공사의 공공분양아파트 7개 단지 3101가구가 입주한다. 위례신도시에서도 LH공사가 짓는 송파구 생활권의 휴먼시아 2개 아파트가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A1-11블록 휴먼시아는 전용면적 51~84㎡ 1810가구, A1-9블록 휴먼시아는 전용면적 51~59㎡ 1139가구 등이다. 11월에는 롯데건설이 서초구 방배동 방배2-6구역을 재건축한 전용면적 59~216㎡ 744가구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가 입주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지난 2011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내 집 마련 희망자 또는 세입자들은 연내 주택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한강신도시 푸르지오 소형평형 회사보유분 공급!!

한강신도시에 위치한 '한강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812가구) 중 시행사 보유분(공급면적 기준 80㎡) 일부를 분양한다.

'한강신도시 푸르지오'는 김포 한강신도시 생태환경지구에 들어선 단지로 한강신도시에서 드물게 소형 단일 면적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 대한민국 생활대상 수상한 단지이다. 단지 인근에 약 63만㎡ 규모의 조류생태공원이 위치하여 한강신도시에서 최대 쾌적한 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23.61㎞의 김포도시철도가 연내 확정이 결정지면서 수도권광역 쾌속 높고 있다. 일반 지하철과 비슷한 80㎞/h의 운행속도로 기점부터 종점까지 약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김포공항에서 서울9호선 급행을 갈아타면 강남권까지 1시간 생활권에 들게 된다.

'한강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는 도시철도 예정역 도보 5분~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한강신도시 푸르지오' 분양가는 3.3㎡당 930만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가 수준인 30%~40%대로 내 집마련이 가능하다.

문의 031)998-9973

무너진 100조 시대

국내 건설수주 2년째 급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 건설 시장 일감이 2년 연속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현 GS건설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최한 '201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방안'을 통해 내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와 내수 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91조7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건설 수주액은 올해도 90조4000억원으로 10년 동안 최저 수준에 그쳐 2년 연속 100조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건설 수주는 올해 650억 달러에서 내년에 7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국명기자 kmlee@

부동산 부활? 중개사들 "아니올시다"

과반수가 "4분기 부정적"

8·28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으나 공인중개사 과반은 4분기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114가 공인중개사 1100명을 대상으로 '4분기 주택시장 전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8%가 4분기 시장 회복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내년에도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답변도 62.8%에 달했다.

4분기 주택 시장이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대외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정부의 핵심 방안에 대한 입법 지연을 꼽은 사람이 각각 39.7%로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 선호 현상 심화에 따른 매매 전환 부진(6.6%), 가계 부채(5.2%),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수요자들의 인식(3.4%)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4분기 주택 시장에서 회복세가 나타난다면 그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매매 전환 수요 확산(40.4%),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의 막판 효과(36.5%), 주택 가격 바닥 인식에 따른 매수세 증가(13.5%), 저금리 모기지 등 정부 주택자금 지원 확대(9.6%)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묻는 항목에는 취득세 영구 인하(36.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32.7%), 저금리 모기지 제도 확대(8.2%), 양도세 5년 한시 감면 연장(6.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연장(4.5%) 순으로 답변했다. /김현정기자 hjkim@

이통3사 '어장관리중'

새 LTE 서비스 본격화에 "장기가입자 이탈막자" VIP 혜택 '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충성도 높은 장기 가입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대역 LTE와 LTE-A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가입자 쟁탈전에 나선 가운데 이동 3사는 기존 장기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VIP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장기 가입자 우대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2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리필 100%, 멤버십 한도 최대 4만 점까지 무료 리필, 기존 기기 변경 혜택을 한층 강화한 '뉴 착한기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장기 가입자 우대 정책으로 해지 비율이 급감하는 등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KT는 휴대전화 가입 2년 이상인 장기 고객에게 올레클럽 고객 등급과 휴대전화 사용 기간에 따라 '별(멤버십 포인트)'을 기존 대비 최대 2배로 총 10만 개(10만원 상당)까지 주가 제공한다. 특히 휴대전화 가입 10년 이상인 고객은 슈퍼스타(SuperStar) 등급을 부여하고 CGV 영화 월 1회·연 6회 무료, 스타벅스 무료 커피 제공, 케어어링 특화 서비스, 휴대전화 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휴대전화 2년 이상, 인터넷 3년 이상 이용 고객 중 유무선 합산 이용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합산 기간이 7년 이상이면 7%, 10년 이상은 10%, 15년 이상인 경우 15%의 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울러 7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멤버십 등급을 'VIP'로 승급시켜 멤버십 포인트 10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가입자는 충성도도 강할 뿐 아니라 통신요금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가 많아 경쟁사에 빼앗길 경우 타격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통사가 장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y@metroseoul.co.kr

반려동물 프로필 담은 '첨단 목걸이'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RFID IoT 월드 콩그레스 2013 국제전시회' KT 부스에서 관계자들이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의 일환인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의 반려견 목걸이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보조금 잡는 암행어사' 뜬다

방통위, 이통3사·대리점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본사,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과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동 3사에 67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이후 단말기 보조금 시장이 8월 중순까지는 다소 안정됐으나 8월 말부터 일평균 번호 이동이 2만7000건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였다.

특히 최근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이용자 차별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시장 과열 현상이 이통사의 가입자 확대 등 연말 목표 달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단말기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이에 따른 재고 단말기 밀어내기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영기자

ICT 연구개발에 8조5000억 투입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연구 개발(R&D)에 향후 5년간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타 분야의 산업과 ICT의 융합을 촉진하고, 12조 9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7조7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23일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ICT R&D 중장기 전략'을 확정했다. /김세규기자 kimsg@

(광고)

나이가 많아도, 건강에 자신 없어도 'OK실버보험'은 가입 가능

50~81세까지 가입가능한 상품으로 가입2년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1. 나이 들수록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던 강춘호씨(71세, 제천) 많은 나이 때문에 그동안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화 한 통으로 보험 가입에 성공했다.

사례2. 신문숙씨(68세, 부산)는 작은 질병치레와 복용중인 약 때문에 보험 가입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우연찮게 신문을 보던 중 자신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즘 전국방방곡곡에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실버세대들이 늘고있다. 그 화제의 중심에는 라이나 부채당 OK실버보험(갱신형)이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망보장보험으로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50세에서 81세 어르신이라면 나이와 병력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 남은 가족들을 위해 가입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상세는 나이가 많아도 이제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자신과 같은 동년배들을 OK실버세대라고 칭했다. 뒤늦게 가입한 보험에 매우 만족한 모습이었다.

* 최초계약 7년 만기 후 매 5년 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장 88세까지 보장되며(갱신 가능 최고나이 81세)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임 * 회사에서 정한 심사 절차를 거친 경우, 보다 저렴한 보험에 가입 가능(50세~80세) * 가입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되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보장하지 않음 *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환급 * 계약자가 청약 시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OK실버보험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080-590-8585

61~80세 가입가능한 국내최초 실버전용 암보험 관심집중

14개 노인성 질환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암진단비 보장

나이가 많고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나도 암보험에 가입 할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암 발병률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나이를 핑계 삼아 어르신들을 가입시켜주지 않는 보험사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에서 국내 최초로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전용 암 전문보험이 출시되며 이런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나이가 많아도, 14개 노인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추간판탈출증, 전립선비대증, 부정맥, 퇴행성관절염, 척추협착증, 녹내장, 고지혈증, 노인성난청, 노인성황반변성)이 있어도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

61세에서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암보험은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 뇌암, 골수암도 보장하며,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암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즉각 받을 수 있다. 또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든든히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이가 많아서 암보험을 들기 어려웠던 60~70대들이 암을 대비하기 쉬워졌다.

자세한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080-951-8585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임 *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 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가입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지급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버암보험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080-951-8585

뉴스 & 뉴스

자동차 선호색상 1위는 흰색

● 흰색이 은색을 누르고 인기 자동차 색상 1위에 등극했다.

자동차 도료업체 PPG인더스트리즈는 올해 출시 자동차를 분석한 결과 흰색이 25% 지지율로 20년 만에 은색을 누르고 선호 색상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며 은색과 검은색은 각각 18%로 공동 2위에 올랐다.

PPG인더스트리즈는 흰색이 주는 깔끔하고 지적인 느낌이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선호 색상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조성욱기자

면접 큰 실수 '연락없이 지각'

● 23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276명을 대상으로 '면접에서 지원자의 실수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라고 묻은 결과 66.3%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89.6%는 지원자의 실수 때문에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원자의 실수로는 '연락 없이 면접 지각'(42.6%)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라국상기자

서류·방문 없이 30분내 대출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인기

고객이 쉽게 신청하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설계돼 있는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이 인기다. 특히 서류·방문이 필요 없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최고 한도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영향 없이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만으로 30분 내에 빠르게 입금이 가능하다. 문의 1588-5330

게임산업 10조 '규제 뚫고 하이킥'

화장품·렌털사업 버금가는 빅마켓 수준

국내 게임 산업의 규모가 화장품·렌털 사업과 같은 빅마켓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술·마약·도박과 함께 4대 중독 으로 꼽힌 온라인게임의 위용과 순기능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3일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2011년과 견줘 10.8% 성장한 9조7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장품을 포함한 뷰티 산업, 각종 렌털 사업, 엑스레이 장비 관련 산업 규모와 비슷한데 통상 10조원 규모 시장은 이른바 '빅마켓'으로 분류된다.

국내 게임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해 올해 10조원 규모를 돌파하고 2015년에는 12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게임 시장은 온라인게임이 선도했고 모바일게임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온라인게임은 6조783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체 게임 시장의 69.6%를 점유했고, 모바일 게임은 8009억원의 매출로 8.2%를 차지했다.

PC방과 아케이드 게임장(오락실) 등 유통 부문을 제외하고 제작 부문만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다시 계산하면 온라인게임은 전체의 88%를, 모바일게임은 1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가지 종류의 게임이 전체 게임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산 게임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36.6%)이었으며 이어 일본(26.7%), 동남아(18.8%), 북미(7.7%), 유럽(6%) 순이었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게임 시장(1117억5000만 달러)에서 국내시장(70억63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였다.

지난해 게임 수출액은 26억3891만 달러(약 2조8000억원)로 2011년보다 11% 성장했고, 수입액은 12.6% 줄어든 1억7913만 달러(약 1900억원)였다.

국내 게임 산업 종사자는 9만5041명으로 집계됐다. 제작·배급업 종사자가 5만2466명으로 과반인 55.2%를 차지했고 유통·소비업 종사자가 4만2585명으로 44.8%를 차지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근거리무선통신 기능 갖춘 프린터 한국HP는 23일 기업용 최초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장착한 레이저젯 엔터프라이즈800시리즈 프린터와 복합기 4종을 출시했다. 주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시큐어 하드디스크 적재 보안이 강화됐다. /한국HP제공

쥬크·올뉴쏘울 미니 도전장

미니른 향해 쥬크와 올뉴쏘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각각 쥬크와 올뉴쏘울을 출시한 한국 닛산과 기아자동차는 BMW 소형차 브랜드 미니를 경쟁 모델로 지목했다.

지난 15일 열린 쥬크 출시회에서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이사는 "쥬크는 미니 시리즈와 고객이 겹칠 전망"이라며 "쥬크가 미니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아차 이삼웅 사장도 지난 22일 올뉴쏘울 신차 발표회에서 "미니 무퍼를 따라잡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모델은 2008년 쏘울 출시 이후 5년 만에 내놓는 야심작이다.

미니는 '평범하지 않다(NOT NORMAL)'란 슬로건 속에 독특한 디자인과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충성도 높은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다. /김은희기자

박 대통령 유럽 순방 경제사절단 67명 발표

중소·중견기업 CEO가 절반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일부터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유럽 순방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6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23일 발표한 명단에는 대기업 13명, 중소·중견기업 33명, 금융권 4명, 공공기관 8명,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9명 등이 포함됐다.

대기업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홍기준 한화그룹 부회장, 김포룬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등이 꼽혔다.

중소·중견기업인으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 이홍구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김윤섭 유한양행 대표이사,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등이, 금융권에서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등이 선정됐다.

공공기관장에는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 오영호 코트라 사장 등이,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 중 프랑스에서 45명, 영국에서 64명, 벨기에에서 22명이 각각 박 대통령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이용자 참여 '집단지성' 눈길끄네

다음 대한민국 생활 지도제작 캠페인에 활용

대한민국 지도 건강 캠페인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집단지성을 활용한 이용자 참여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업이 챙기지 못하는 정보를 일반인이 제보해 시너지 효과를 꾀하는 것이다.

23일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용자와 함께 대한민국 생활 지도 제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지도 정보를 집단지성으로 수정하는 '대한민국 지도 건강 캠페인'은 신장 개업 및 폐업 가게, 신축 건물 등을 이용자들이 PC와 모바일로 신고·수정하게 한다.

다음은 캠페인에 참여한 이용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영화 예매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31일까지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블로그(blog.daum.net/daummaps/4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 카페에서도 집단지성 응 적임이 활발하다. 운영진이 커뮤니티에 대기업 공기 복원 게시판을 만들면 시험을 본 구직자들이 기억나는 문제를 댓글로 다는 식이다. 이렇게 모인 문제들은 자후 개정판 문제집에 반영되고 참여자들은 등급 위 또는 경품 혜택을 얻는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자신이 받은 면접 문항을 공유하기도 한다.

복원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남들이 받은 면접 질문을 취합하면서 예상 면접에 대비할 수 있었다" "틀린 문제를 복원하는 마음은 아프지만 다음 시험 볼 때 도움이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윤희기자 unique@

애플의 CEO 팀 쿡이 22일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투트랙 대반격'

무서운 애플

아이패드 미니 신제품 해상도 두배 가격 동일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맥 OSX는 전면 무료화

애플 대반격의 서곡일까

최근 애플의 행보에 전 세계 IT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사후 '혁신이 사라졌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해온 '고가·중저가' 투트랙 전략이 서서히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9월 미국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에서 경쟁자인 삼성전자를 무려 10% 포인트로 앞서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데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무료 배진을 앞세워 공룡 마이크로소프트(MS) 따도에 나서 판도 변화가 불가피한 조짐이다.

애플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바부에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레티나(망막)' 화면을 장착한 아이패드 미니 신제품(큰 사진)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지난해 10월 선보인 전작 아이패드 미니와 화면 크기는 같지만 해상도를 두 배인 2048×1536화소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제품 가격은 이전 제품과 같은 399달러(약 42만원)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중저가 7~8인치대 태블릿PC 시장에서 애플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애플의 행보는 예사롭지 않다. 애플은 이날부터 사진 편집 프로그램 아이포토는 물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아이무비, 음악 제작 프로그램 거라지 밴드를 비롯해 아이워크 카테고리의 페이지스, 넘버스, 키노트 프로그램까지 모두 무료로 풀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킨토시 컴퓨터를 구동하는 운영체제(OS)인 OSX '매버릭스'까지 무료로 내놨다.

이에 따라 맥 컴퓨터나 아이폰·아이패드를 사면 OS부터 모든 사무용 필수 프로그램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윈도 OS를 사는 데 17만원, 오피스365를 이용하는데 매년 12만원씩 들어가는 MS용 소프트웨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애플은 단말기와 소프트웨어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며 "아이폰·아이패드의 장점을 바탕으로 SW 시장 장악에 나서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ssy@metroseoul.co.kr

MS·노키아도 새 태블릿PC 공개

애플이 아이패드 신제품을 내놓은 23일(한국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도 새 태블릿 PC를 공개했다.

하지만 아이패드에 쏠린 관심이 워낙 큰 탓에 이들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외면은 받는 굴욕을 당했다.

MS는 '서피스 2'와 '서피스 프로 2'를 출시했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나온 '서피스 RT'와 '서피스 프로'의 후속작이다. 모양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전력 소모 등 성능이 크게 좋아졌다는 것이 MS의 설명이다.

노키아는 자사 첫 태블릿PC 루미아 2520을 선보였다.

신제품은 10인치급 액정을 장착했고 윈도8.1 RT로 구동되며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LTE 기술을 적용됐다. 하지만 미국의 IT 전문 매체 시넷은 '서피스 2 출시 행사에는 고객 빠지고 더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분위기를 전달했다.

/박성훈기자 zen@

SKT 스마트 교육로봇 누리아띠 본격적 판매

SK텔레콤이 스마트 교육 로봇 '누리 아띠'의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한다.

SK텔레콤은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인 '로보월드 2013' 현장과 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24일부터 아띠를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띠 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1000명에게는 공식 판매가 54만9000원보다 약 30% 할인된 39만9000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띠는 4~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로봇을 만지고 움직이며 놀이를 통해 두뇌 계발과 신체 발달 등 다중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용 로봇이다.

스마트폰을 로봇의 두뇌로 활용함으로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증강현실 기술 등을 적용해 학습 효과를 대폭 향상시킨 것이 장점이다.

/김학철기자 kyt4545@

다음 '대입'서비스…1타 강사 총출동

EBS강좌부터 입시업계 콘텐츠까지 제공

EBS, 이투스, 스카이에듀, 대성마이맥의 1타 강사들이 포털 다음에 로그인한다.

다음은 수험생이 입시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찾고, 학습할 수 있도록 '대입' 서비스를 23일 새롭게 선보였다.

다음은 국내 최초로 EBS 강좌부터 입시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EBS 공략법, 과목별 학습법, 입시 자료까지 한데 모아 제공하는 대입(edu.daum.net/hush/) 서비스를 오픈했다. 다음은 대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BS 등과 제휴했다.

이번에 오픈한 대입 서비스는 ▲교재별 과목별·선생님별 강좌를 골라서 학습할 수 있는 'EBS 수능' ▲EBS 공략법, 과목별 학습법, 입시 전략, 이투스·스카이에듀의 무료 강좌를 제공하는 '학습 전략' ▲입시 뉴스, 입시 칼럼, 입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입시연구소' ▲재미·이해·적중 등의 요소로 선생님을 평가하고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선생님'으로 구성된다.

특히 수험생들의 학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강의 플레이어에 다양한 기능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을 위해 최대 2배까지 강의 속도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원하는 지점을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는 자막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다시 보고 싶은 지점을 책갈피로 저장해두면 언제든 마이(MY) 메뉴에서 선택해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이외 함께 다음은 수험생들이 보다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투스, 스카이에듀, 대성마이맥, 공신닷컴의 유명 강사들과 함께 제작한 '꼭 풀어봐야 할 기출문제 베스트 5',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EBS 요점 정리' 등의 D-15 마무리 전략 콘텐츠를 독점 공개한다.

/박성훈기자 zen@

'리크루터 SNS' 링크드인 모바일 앱으로도 서비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전 세계 2억38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링크드인이 언제 어디서나 구직자와 구인 담당자들이 소통하도록 돕는 리크루터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기존 PC 환경에만 맞춰져있던 링크드인 리크루터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이 링크드인을 통해 보낸 인메일(InMails)에 응답하고, 링크드인에 등록된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지원자에 대한 인사 담당자의 피드백을 확인하는 등 링크드인 리크루터의 기능을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비변비형 과민성장증후군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국화과 생약인 백출을 추출하여 만든 SKI3246의 비변비형 과민성장증후군 환자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피험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
- 만 20세에서 75세로 비변비형 과민성장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
- 6개월 전에 증상이 시작되고 지난 3개월 동안 적어도 1개월에 3일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복통 또는 복부불편감이 있는 분
- 1주일 배변횟수가 3회 이상인 분

참여에 따른 제공
임상시험과 관련한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조영술 검사 및 각종 검사와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드는 비용은 무료이며 (단,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조영술 검사의 경우 5년 이내의 검사 결과가 없을 경우에 한함)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선정되어 참여하시는 분은 소화기내과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게 되십니다. 또한 매 방문당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받게 되십니다.

방문 횟수
최대 17주 동안 최대 5회 방문 (임상시험용의약품 복용 기간 12주)

임상연구 실시기관 및 연락처

모집 문의안내 | 1544-4088

구석구석

◆전주비빔밥축제
- 날짜 10월 24~27일
- 장소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한국 음식의 전통을 잇고 한식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축제로 지난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33개 동(洞)이 참여한다. 한바탕 비빔 퍼포먼스와 전국 요리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나는 셰프다, 이색 비빔밥 거리, 내 몸에 맞는 비빔밥, 비빔밥 스탬프 랠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 원육까울 우수 음식점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특별 비빔밥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고성명태축제
- 날짜 10월 24~27일
- 장소 강원 고성군 거진항 일원

고성 명태는 행운의 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전통 명태 요리를 직접 재현하는 한편 명태 행운엽자 샌드 아트 체험, 지어 병류 행사, 명태 담고나 체험 등의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특히 고성 명태를 현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장터시장과 시음회를 통해 고성 명태와 고성군 대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부산고등어축제
- 날짜 10월 25~27일
- 장소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일원

축제는 고등어를 재료로 요리 솜씨를 뽐내는 전국 고등어요리 경연대회, 맨손으로 고등어 잡기, 고등어 화덕구이 체험, 고등어 경매 전시 등 고등어를 주인공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27일에는 전국 고등어 씨름대회가 개최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고등어 요리 체험교실, 명품 고등어 요리관, 고등어 홍보관 등의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지난해 벌교 꼬막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갯벌에서 꼬막캐기 체험을 하고 있다. 아래사진은 꼬막까기 행사 전경

쫄깃한 가을? 꼬막에게 물어봐

27~29일 보성 '벌교 꼬막축제'

여자만 깊은 갯벌서 속살 꽉꽉
조정래 소설 등장 전국 유명세
널배타기-문학기행 '2색 재미'

남도 대표 먹을거리인 꼬막이 제철을 맞았다. 꼬막의 주산지인 전남 보성군 벌교에서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꼬막 맛 따라 태백산맥 문학기행을 벌교에서'라는 주제로 '제12회 벌교꼬막축제'가 열린다. 깊어가는 가을, 알차게 맛이 든 꼬막 진지로 초대한다.

◆심청 먹고 흥가는 임금님 진상품

주지이 수민금인 꼬막은 예로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벌교 꼬막은 천혜의 자연환경인 여자만의 깊고 차진 갯벌에서 채취돼 다른 어느 지역에서 잡은 꼬막보다도 육질이 쫄깃하고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축제는 주인공 이름에 걸맞게 꼬막을 중심으로 진행돼 축제를 찾는 누구나 꼬막의 참맛을 만끽할 수 있다. 축제 첫날에는 꼬막과 벌교 각 마을의 특산물을 넣어 만든 대형 꼬막 비빔밥 만들기 행사가 진행된다. 꼬막을 활용해 관광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꼬막 던지기 및 꼬막 까기, 꼬막 무게 알아맞히기 대회, 널배 타기 대회 등의 체험 행사가 이어진다. 축제장에는 꼬막 캐릭터와 캐릭터 상징물, 포토존이 마련돼 꼬막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주말에는 꼬막 삶기와 시식 체험도 벌어진다.

◆다양한 놀거리기 가득한 축제

축제는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남도 최고의 먹거리 축제인 만큼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첫날 퍼레이드와 공연을 시작으로 농악놀이, 민속 윷놀이, 가야금 병창 공연, 품바, 7080 콘서트 등 맛깔스럽고 흥겨운 행사가 이어진다. 또 매일 진행되는 환상 불꽃쇼가 밤바다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관광객들이 직접 만들어 달 수 있는 소원등 역시 축제를 한없이 밝게 비춘다.

이와 함께 갯벌 생물 캐릭터 만들기 체험, 어린이 천연염 놀이 체험, 갯벌에서 즐기는 꼬막캐기-달리기, 널배 타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꼬막 채취 도구 전시와 태백산맥 인물 공예품 전시, 벌교 사진 전시회, 보성 녹차 시음회 등도 열린다.

◆태백산맥을 만나다

벌교 꼬막이 소설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으로 인해 전국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축제에는 태백산맥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된다.

태백산맥 문학 기행, 태백산맥 OX퀴즈, 태백산맥 문학 공연과 공연, 어울제 등이 진행되는데 특히 27일 열리는 문학 기행이 눈에 띈다. 문학 기행은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태백산맥의 주 무대인 중도 방죽과 현부자집, 소화의 집, 소화다리를 거쳐 벌교역으로 이어지는 탐방으로 구성되며 생생한 해설과 연극을 통해 살아있는 태백산맥을 경험할 수 있다.

또 벌교에 안녕을 기원하며 불행한 시대에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을 달래기 위한 살풀이 공연과 벌교 읍민과 관광객의 화합을 다지는 공연으로 꾸며지는 어울제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10월 25~27일
- 장소 전남 보성군 벌교천변 특설 무대 및 갯벌 체험장 일원
- 문의 벌교꼬막축제추진위원회 061)857-7676

차향으로 샤워 후 쥐라기 시대로

보성은 꼬막만큼 한국차의 명산지와 공룡알 동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꼬막만큼 흥미로운 보성을 만나보자.

◆보성차밭-한국차박물관서 '힐링'

보성차밭(대한다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차(茶) 관광농원이다. 보성읍 위에가 내려다보이는 산록에 자리 잡은 차밭은 드넓은 평원을 형성해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봉로(峯露)'라는 이름의 한국차 전문점에서는 향긋한 차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직접 찻잎을 따보는 체험도 가능해 여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보성에 오면 보성차밭과 함께 누구나 거쳐 가는 곳인 한국차박물관은 차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차를 이해할 수 있는 '차 문화실', 차의 발자취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차 역사실'을 둘러본 후 박물관에서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한 '차 생활실'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차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국내 최대 공룡알 등지 화석 '흥미진진'

공룡알 화석지는 지난 200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공룡알 둥지가 발견돼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기도 하다. 화석지를 찾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관찰 데크를 따라 화석지 현장 학습을 즐길 수 있다. 화석지와 어우러지는 풍경은 즐거움 멋진 추억을 남겨준다.

/황재용기자

혼수 쇼핑리스트 핫하네

비실속 예단삼종사 대신 커피머신·의류관리기 등 고급가전 선호경향 뚜렷

가을 웨딩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최근 예비 부부들의 결혼 준비는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불황이 길어지면서 신혼부부들이 허례허식은 버리고 실속 있는 웨딩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값만 비싸고 자주 쓰지 않는 예단 혼수 대신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고급 가전 제품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고품질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 머신'은 단연 인기 혼수 품목으로 꼽힌다.

네스프레소의 '라티시마+'는 우유 거품 기능이 탑재돼 있어 카페라테나 카푸치노 등 밀크 커피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실키 화이트, 아이스 실버, 패션 레드 등 세련된 컬러로 주방을 한층 우아하게 만들어 준다.

예단 삼종사 중 하나인 반상기·유기 수저 세트는 터무니없는 가격대로 부담스럽기만 하다.

덴마크 도자기 브랜드 로얄코펜하겐은 최근 한국인의 식문화에 맞는 '블루 하프 레이스 한식그릇'을 선보여 실용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고급스러운 패턴에 국그릇, 밥그릇, 찬그릇 3종 등 꼭 필요한 5종으로 구성해 웨딩 시즌을 앞두고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패션에 민감하고 바쁜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의류관리기는 결혼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LG전자의 '트롬 스타일러'는 매일 입는 양복, 니트 등 한 번 입고 빨기 애매한 의류의 냄새와 구김을 제거하고 향기까지 추가해 항상 새 옷처럼 입을 수 있게 관리해준다. 매일 아침 다림질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세탁비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끓는다! 쿠쿠·쿠첸 '밥솥 전쟁'

국내 밥솥 업체 1, 2위인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이 가을 혼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리홈쿠첸은 지난해 선보인 '명품철정 클래식 IH압력밥솥'의 기능과 디자인을 개선한 10인용 밥솥을 이달 출시한다.

다음달에는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와이파이 기능을 탑재한 밥솥과 6인용보다 작은 미니 밥솥도 선보인다.

리홈쿠첸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온·예약 취사 등 시간을 절약하는 기능이나 주방 인테리어에 어울릴 수 있게 디자인에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쿠쿠전자는 '풀스테인리스 2.0 에코'와 '풀스테인리스 2.0'을 지난달 선보이고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스테인리스 특성상 깔끔한 금속 디자인과 세척이 편리한 점 때문에 젊은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정품 패션브랜드 할인 풍성

하프클럽 패밀리 세일

트라이씨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하프클럽이 29일까지 '패밀리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써스데이 아일랜드, 콕스, 올젠, 제스 등 하프클럽 온라인 몰 내 입점돼 있는 국내 유명 캐주얼·남성복 브랜드 총 20여 개가 참여한다.

여기에 이사베이, 아나베에브 등 여성 브랜드도 대거 동참, 80%에서 최대 90%까지 할인 판매한다.

캐주얼 티셔츠의 경우 2000원, 5000원 균일가에 판매하며 청바지는 최저가 5000원, 정가 30만원대 여성 재킷은 1만원대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일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을 돌려주는 고객 사은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한편 정품 패션 브랜드를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하프클럽은 2001년에 오픈해 현재 회원 수 45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문의 www.halfclub.com /서지원기자

한돈 웰빙부위 "반값만 내세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3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대한민국 건강식단 프로젝트, 한돈 웰빙 부위로 건강식단 만들기' 캠페인 오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4일부터 30일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1600여 개 매장에서 한돈 웰빙 부위를 최대 50% 할인한다. /뉴시스

강강술래 '가을애 힐링 페스티벌' 손짓

홈페이지에 신청글 남기면 플라잉요가 1년권 등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sullai.com)가 스트레스와 일상에 지친 고객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기 위해 '가을애(愛) 힐링 페스티벌'을 벌인다.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글을 남기면 아메리카맛요가의 플라잉요가 등 최신 트렌드 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1년 VIP회원권(1명), 6개월(5명), 1개월(20명) 회원권을 증정하며 신청자 전원에게는 3회 무료 수강권을 준다.

또 혈액순환 개선, 노화 방지, 만성피로 해소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아르베지오의 퓨리스 자편이불(23만원, 6명)과 직영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침구상품권(5만원, 30명)도 증정한다.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네 명의 평준 남녀가 사랑과 명예, 꿈을 걸고 벌이는 인생 승부를 화려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티켓도 증정한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서는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선물세트(350g, 5팩, 10인분)는 1만89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10팩짜리 소용량 세트(350g, 20인분)는 3만7800원에 40% 할인 판매하며 구입 시 올인원 쥬크화장품(1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세트, 1.08kg)는 40% 할인된 2만1600원에 선보인다.

고양 능곡농원점과 삼계점은 11월 7일까지 소고기 메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 메뉴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나갈 때 주문한 인분 수만큼 포장해준다. /박지원기자

뉴스 & 뉴스

디즈니 쇼핑몰 '디즈니존' 핼러윈 맞아 할인 행사

● 디즈니 정품 온라인 쇼핑몰인 '디즈니존'이 핼러윈데이를 맞아 31일까지 프린세스 드레스 12종을 최대 40%까지 할인하고 무료 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설공주·신데렐라 등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인기 드레스로 장갑·목걸이 등도 포함돼 있다. 문의 www.disneyzone.co.kr

김치용기 '락앤락 프레스' 오늘 CJ오쇼핑서 방송

● 락앤락은 24일 오전 7시15분부터 60분간 CJ오쇼핑에서 김치보관용기 '락앤락 프레스'를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락앤락 4면 결착형 뚜껑에 실리콘을 적용한 밀폐·절임 전용 누름판을 추가해 밀폐력을 강화했다. 2ℓ 용기 2개와 물김치 전용 5ℓ 용기 3개로 구성했으며 가격은 6만9800원.

BAT '던힐' 담배 부드러운 맛의 신제품 2종 출시

●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코리아가 '던힐 스위치 6mg'과 '던힐 스위치 원' 등 2종을 출시했다.

필터 내에 넣은 캡슐이 터지기 전후로 던힐 특유의 부드러운 맛과 상쾌한 여운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타르 함량은 각각 6.0mg과 1.5mg이며 가격은 모두 2700원.

퇴행성관절염 '노년층 전유물' 아니다

비만·외상 등 인해 젊은층서도 발병··최근 '줄기세포연골재생술' 부작용 없는 치료 가능

퇴행성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과 연골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발생한다. 따라서 50대 이상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층에서도 심심찮게 퇴행성관절염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거주하는 신모(32)씨 역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오랫동안 과체중으로 지내온 신씨는 최근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기에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가 되면서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다가 퇴행성관절염임을 알게 됐다.

신씨가 퇴행성관절염에 걸린 이유는 비만 이었다. 서 있거나 걸어다닐 때 사람의 체중은 무릎에 그대로 실리는데 과체중일 경우는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세바른병원 강서점 고재현 원장은 "노화의 비만 외에 관절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이나 유전적인 영향도 퇴행성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골 손상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줄기세포연골재생술

보통 퇴행성관절염은 초기에 발견하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상태가 심한 경우 인공관절치환술 같은 수술적 치료법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신씨처럼 환자 나이가 어리고 연골의 손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줄기세포연골재생술을 권할 수 있다.

세바른병원 강서점 고재현 원장이 퇴행성관절염 환자와 상담하고 있다

줄기세포연골재생술은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활용해 남아있는 연골을 재생시키고 관절의 상태를 원래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다. 우선 환자의 골수나 복부 지방을 채취한 뒤 이것을 원심분리기에 넣어 활발한 줄기세포만을 분리한다. 분리한 줄기세포는 조직 손상 부위에 직접 주입된다.

세바른병원 강서점 안수현 원장은 "줄기세포는 일단 주입되면 주변 조직과 유사하게 분화하고 성장인자와 함께 손상된 조직을 신속히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치료 원리를 설명했다.

줄기세포연골재생술은 환자에게서 직접 줄기세포를 얻으므로 거부반응 없어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술 없이 근본적으로 조직 재생을 유도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재생시킬 수 있는 연골이 남아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골의 손상 범위가 크지 않아야 하며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에 적합하다. 또한 줄기세포연골재생술을 받은 후에는 2주간 자가운 찜질을 해주고 음주나 사우나, 과격한 운동 등은 삼가야 한다.

세바른병원 강서점은 퇴행성관절염은 물론 오십견이나 회전근개파열·석회화건염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병할 수 있는 관절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줄기세포연골재생술과 함께 관절내시경수술·DNA프롤로치료·자가연골이식술·인공관절치환술 등 다양한 치료법을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깨관절치료센터·류마티스센터를 새롭게 선보이며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에 따라 차별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해나가고 있다. 또한 평일과 마찬가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전문의들이 직접 진료에 나서며 환자들의 편의를 돌보고 있다. 문의 1588-3094 /박지원기자

산행 땐 마그네슘 드세요

아웃도어 활동 힘 주는 건강기능 식품들 눈길

가을을 맞아 등산·트레킹·캠핑을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야외 활동이 잦은 계절에 꼭 챙겨야 할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했다.

야외 캠핑이나 산행 등을 할 때는 시간당 약 300㎉ 이상을 소모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체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에너지를 보충해줄 수 있는 간식이나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과 체내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나이아신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았다면 근육이나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져 부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바깥 활동 전에는 준비운동을 통해 근육과 인대를 풀어

주고, 평소 글루코사민과 N-아세틸글루코사민·디메틸설폰(MSM) 등을 챙겨 먹어 관절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게 좋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온종일 밖에 있으면 체력과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고 감기에 걸린다.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인삼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당귀혼합추출물 역시 면역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다.

/박지원기자

이대목동병원 건립 후원자 초청의 밤 '감동'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대목동병원 건립 후원자 초청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대목동병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순남 의료원장과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와 역대 기관장 및 동창회장, 퇴직 교직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턴 여사를 기리는 센느 하느 스크랜턴 여사의 재방문 공연과 이화여자대학교 중창단 '비체나'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이순남 의료원장은 "이대목동병원이 20여 년 동안 환자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건립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건강 책읽어

■고혈압 3개월에 약 없이 완치하기

후쿠다/비타북스

한국인의 고혈압은 유전이나 짜게 먹기·음주·흡연 등 생활 습관에 원인이 아니다. 저자는 고혈압의 근본 원인으로 스트레스, 예민한 몸과 마음, 비만 등을 꼽으며 약과 시술이 아닌 선택과 훈련으로 고혈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흔히 고혈압에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자는 삶의 변화와 훈련을 통해 완치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감칠맛과 MSG 이야기

최낙언/리북

일반적으로 MSG는 화학물질을 인공적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김치나 된장처럼 미생물 발효를 통해 얻은 글루탐산이다. 또 MSG가 천식·아토피 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후속 연구에 의해 잘못된 것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맛·짠맛·신맛·쓴맛 외에 '감칠맛'으로 대표되는 식품첨가물 MSG에 대해 낱낱이 파헤쳤다.

metro entertainment

"힘 빼고 자연과 일상 노래했죠"

정규 6집 '꽃은 ' 발표 루시드폴

가요계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루시드폴(38)은 단조롭지만 차분하게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싱어송라이터다. 23일 발매된 정규 6집 '꽃은 말이 없다'에서는 한층 더 힘을 뺀 자연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새 앨범 소박하고 서정적

새 앨범의 느낌은 소박하고 서정적이다. 지난해 북촌의 한옥으로 이사한 루시드폴이 세찬 비가 쏟아졌던 올여름, 집 마당과 주변을 둘러보면서 얻은 영감을 이용해 만든 곡들로 앨범을 완성했다.

기타와 목소리만으로 꽉 찬 느낌을 주는 타이틀곡 '검은 개'는 집 앞에서 우연히 개 한 마리를 만난 뒤 적어둔 짧은 메모에서 탄생했고, '나비', '서울의 새', '늙은 금잔화' 등의 수록곡들도 루시드폴이 꽃로 날아든 나비와 비둘기, 키우고 있는 꽃들을 보면서 만든 곡이다.

1998년 미선이밴드로 음악 활동을 시작해 벌써 데뷔 16년째다. 스위스 생명공학 박사 출신으로 지난해 '무국적 요리'라는 소설집을 내는 등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쏟아냈던 그가 일상에 눈을 돌려 작은 소중함을 추구했다.

"사람들은 작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경시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은 돋보이고 1등이 되고 싶은 강박이 있죠. 저 역시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음반 순위에서 1등을 하고 매 공연이 매진되는 것을 원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는 속상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이한 기타 대거 동원 '신선한 실험'
선율은 느리지만 제 성격은 급해요

부연 설명으로 "지난해 연말 공연이 7년 만에 매진이 되지 않아 나도 회사 사람들도 놀랐다"면서 "그때 음악 외적인 부분에 대해 마음 정리를 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깔끔하고 서정적인 문체의 시인 가네코 미스즈의 동시와 지난해 7년 만에 보낸 1년간의 긴 휴식도 자극이 됐다고 했다.

"노래는 느리지만 성격은 급해서 걸음이 빨라요. 혼자 사는 남자라서 밥도 맛조차 모르고 빨리 먹죠. 지금은 천천히 한 번에 꺼니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동네 한 바퀴 도는 데 15분 걸리던 게 지금은 천천히 걸어서 25분이 걸리고, 밥도 꼭꼭 씹어 먹는답니다."

◆유럽재즈 마누쉬풍 시도

자연적인 일상을 들려한 소리와 풍경을 음악으로 구현하고자 모든 트랙을 피아노, 기타, 콘트라베이스 등 어쿠스틱 악기들로 녹음했다. 특히 전자 전기 증폭음을 제외한 대신 바리톤 기타, 하리톤 기타, 8현 나일론 기타 등 여러 종류의 기타를 사용해 음악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소리를 찾아내는 신선한 시도를 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 그는 "15년간 음악을 하면서 무언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고민했다. 그렇지만 기타 치면서 노래한다는 것만큼은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목소리에 변화를 줄 수도 없고. 해서 기타 사운드를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햇살이 돼주고 싶은 소망을 산뜻하게 노래한 더블 타이틀곡 '햇살은 따뜻해'와 '연두' 등 이타 수록곡에서도 지금까지 루시드폴의 음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유럽의 재즈 마누쉬풍 사운드가 새롭게 시도됐다.

"4집 때 재즈 뮤지션과 처음 작업을 시도했지만 그때는 재즈의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재즈 계열 중에서도 젊은 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멜로디부에 있는 제 노래의 정서를 바로 캐치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주셨죠. 당분간은 이런 사운드로 앨범을 낼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사운드의 감상을 위해 이번 앨범은 CD로 들어달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요즘 음원과 미니앨범이 대세라 50~60분의 러닝타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템포 늦춰서 편하게 즉 들어주세요." /박정환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안테나뮤직 제공 디자인/[illegible]

star bag

또 열애설 "사실 아니다"

가수 **정경호(왼쪽)**가 소녀시대 **수영**과의 열애설을 또 한 번 부인했다.

2월 교제 소문이 나돈 데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열애설이 흘러나온 것과 관련해 정경호 측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밝힌 대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일 뿐이다. 현재 교제 중인 사람은 다른 일반인 여성이다"고 밝혔다. 정경호는 수영이 아닌 다른 여성과 1년째 교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남스타일' 유튜브 18억뷰

월드스타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18억 뷰를 돌파했다.

지난해 7월 15일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사상 최초 10억 뷰 돌파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고 현재까지 유튜브에서 역대 가장 많이 본 동영상으로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도 이날 5억690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슈퍼주니어 월드투어 합류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이 2년5개월 만에 월드투어에 합류한다.

2011년 5월 '슈퍼쇼 3' 베트남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온 그는 8월 소집 해제 후 컴백을 준비해왔다. 그는 24일 필리핀 마닐라 몰 오브 아시아 아레나에서 열리는 '슈퍼쇼 5' 무대에 오른다. 김희철은 앞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4년 사랑 결실… 내년 1월 결혼

스윗소로우의 **성진환(왼쪽)**과 싱어송라이터 **오지은**이 4년 열애 끝에 내년 1월 4일 결혼한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음악으로 가까워져 2009년 말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2년 전 연인 사이임을 공개했다. 성진환은 23일 팬카페에 "최대한 소박하고 조용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천천히 준비하고 있다. 더 좋은 노래 열심히 부르겠다"고 밝혔다.

'섹시퀸' 현아 파격의 끝은 어디

가요계 컴백 앞두고 속옷 노출 티저 공개

차세대 섹시퀸 포미닛의 현아(사진 왼쪽)가 데뷔 후 가장 파격적인 노출로 가요계 컴백을 알렸다.

비스트의 장현승(오른쪽)과 혼성 듀오 트러블메이커를 결성해 도발적이고 섹시한 매력을 분출했던 현아는 2년 만에 신곡 '내일은 없어'를 발표하고 장현승과 다시 호흡을 맞춘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3일 티저 이미지와 스팟 영상을 공개하며 28일 컴백 소식을 알렸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 현아는 속옷 차림의 과감한 노출로 또 한 번 무대에서의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예고했다.

소속사는 "이들의 재결합 및 컴백을 바라는 국내외 가요계 팬들의 성원이 이어졌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고야 만다는 콘셉트 아래 트러블메이커는 특별한 변신을 꾀하며 음악 및 비주얼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미녀 프로골퍼>

"안신애 골프로 만났지만…"

박유천 "교제 절대 아니다"

JYJ의 박유천(사진 왼쪽)이 네 살 연하의 프로골퍼 안신애(23·우리투자증권·오른쪽)와의 열애설을 부인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3일 "박유천이 올해 초 골프를 배우면서 골프를 좋아하는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며 안신애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설명했고 "그러나 교제하는 사이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박유천이 상대 부모를 만났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박유천이 멤버들과 즐겨 찾았던 강남 소재 스크린 골프장이 안 선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소속사 식구들과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열애설 상대인 안신애는 2008년 프로에 데뷔해 이듬해 KLPGA 신인왕을 차지했고 2010년 2승을 거둬 상금 랭킹 3위에 오르는 활약을 펼쳤다. 특히 빼어난 패션 감각과 외모로 인기를 모으며 2010~2012년 KLPGA 홍보 모델로 활동했다. 2011년 일본판 골프다이제스트에서 '한국여자골프 미녀 스타 베스트 11' 중 1위에 올랐고 제27회 코리아 베스트드레서 백조 어워드 스포츠 부문에서 수상했다.

한편 박유천은 봉준호 감독이 제작하고 '살인의 추억'의 각본을 쓴 심성보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 '해무' 촬영에 한창이다.

/유순호기자 ssahn@metroseoul.co.kr

대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거절된적 있으십니까?
100만원 누구나! 무상담대출

저도 되네요!
완전 쉽던데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33 네비란빌딩 T 1566-7979 대출금리 연38.81%이내 (연체금리 …) 단, 2011. 6. 27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역시! Rush&Cash 1566-7979

OD MUSICAL COMPANY, CJ E&M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GREASE

Grease!

내가 선택한 첫 뮤지컬!

No.1 뮤지컬 그리스

2013.10.22 ~ OPEN RUN | 대학로 유니플렉스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김주하 앵커 이혼 소송

김주하(사진) MBC 앵커가 결혼 9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앵커는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자녀 양육 지정 소송을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김 앵커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둘째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가를 냈다가 4월 보도국에 복귀한 바 있다.

현재는 'MBC 경제뉴스'와 인터넷 뉴스 토론 프로그램인 '김주하의 이슈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로도 알려진 강씨는 지난해 KBS2 '스타 인생극장'에 송대관, 김 앵커와 함께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박진중기자

<송희진>

"첫 여자 우승자 욕심"

<박시환>

"제 2 허각 영광"

'슈스케5' 톱5 인터뷰

엠넷 '슈퍼스타K 5'의 톱 5에 오른 참가자들이 우승을 향한 각오를 밝혔다.

지난주 관객을 단 생방송 3라운드를 통해 톱 5에 선정된 김민지·송희진·박시환·박재정·장원기는 23일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심사위원 이승철에게 "사상 최초로 여성 우승자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는 극찬을 받은 송희진은 "과분한 평이지만 영광스럽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우승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기타를 치면서도 안정적인 가창력을 뽐내는 또 다른 여성 참가자인 김민지는 "승패와 상관없이 모든 장르를 잘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유학파 출신 박재정과 정비공 출신 박시환은 각각 비슷한 입장이었던 로이킴·존박, 허각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박재정은 "롤모델은 존박 선배다. 그렇지만 로이킴 선배의 자신감도 닮고 싶다"고 말했고, 박시환은 "허각 선배와 비교되는 게 부담스럽지만 영광"이라고 답했다.

톱 5 중 유일한 유부남인 장원기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 여성 팬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진정성으로 어필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톱 5는 25일 방영될 생방송 4라운드에서 네티즌들이 선정한 곡으로 무대에 올라 양보할 수 없는 경쟁을 펼친다. 우승자에게는 총상금 5억원(음반 제작비 2억원+상금 3억원), 음반 발매 및 유명 감독과의 뮤직비디오 작업 기회 등이 제공된다.

/박정원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엠넷 '슈퍼스타K 5'의 톱 5에 오른 박재정·김민지(위 사진 왼쪽부터)와 박시환·송희진·장원기(아래 왼쪽부터). /CJ E&M 제공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책을 펴서 읽는 순간 중간에 덮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21개국에서 출간된 최고의 미래 소설,

보르코시건 시리즈

(전 16권)

SF 소설 분야의 노벨상

네뷸러상 2회 휴고상 5회 로커스상 1회 수상작

보르코시건 시리즈의 걸작!

4권 『보르게임』 10월 25일 출간예정

● 전자책은 www.ridibooks.com(리디북스)에서 제공. 1권, 2권의 1부는 무료.

●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및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씨앗을뿌리는사람 ☎ 02-511-3485 www.seedbook.com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Someone is on the line for you. 전화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쿠퍼 씨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다른 번호에 거신 것 같아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더 크게 말해주시겠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Someone is on the line for you.
I tried to call Mr. Cooper, but the line was busy.
You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Could you please speak louder?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전체의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넣어 말해보세요.

A Someone is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for you.
B Please tell them to hold. I'm very busy at the moment.

정답: on the line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Somebody / Your father] is on the line for you.
2. You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 an incorrect number].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과거진행시제 부정문

▶ be동사 뒤에 not을 붙이며, ~하고 있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주어	동사		
I	was	not	v-ing
you/we/they	were		
he/she/it	was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확인. 다음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요.

1. I wasn't looking at you. 저는 당신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2. Beth was not crying. 베스는 울고 있지 않았어.
3. Carl was not going home when we saw him. 우리가 그를 봤을 때 그는 집에 가고 있지 않았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o schedule ______ for an Estelis washing machine, please contact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
(A) processes (B) actions
(C) developments (D) repairs

02 Not only is Emiko Imamura a widely published poet, she is also an ______ painter and sculptor.
(A) accomplished (B) accomplish
(C) accomplishment (D) accomplishes

01. 에스텔리스 세탁기 수리 일정을 잡으시려면 고객 상담실로 연락주세요.
해설 수리를 위한 일정을 잡다가 적합하므로 (D) repairs를 쓴다.
어휘 washing machine 세탁기 process 과정, 절차 action 행동, 조치 development 발전
정답 (D) repairs

02 에미코 이마무라는 책들이 널리 출간된 시인일 뿐 아니라 뛰어난 화가이자 조각가이다.
해설 빈칸 앞에는 부정관사 an, 뒤에는 명사 painter가 있으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A) accomplished를 써야 한다.
어휘 publish (책 등을) 출간하다 sculptor 조각가 accomplished 기량이 뛰어난 accomplishment 업적, 성취
정답 (A) accomplished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3 듣고, 질문에 답하기

Questions 4, 5에 답변하기

- 한 가지를 묻는 경우

질문의 예

How often do you purchase new shoes? 얼마나 자주 신발을 구입하나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on vacation? 어디로 휴가를 가고 싶으신가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a movie? 언제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셨나요?

Q. How often do you wear jewelry? 장신구를 얼마나 자주 착용하나요?
핵심답변 I wear jewelry almost every day. 저는 거의 매일 장신구를 착용합니다.
추가문장 Every morning, I pick the jewelry that goes well with my clothes. 매일 아침, 옷과 잘 어울리는 장신구를 고릅니다.

얼마나 자주(How often) 장신구(jewelry)를 착용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핵심 답변을 말한 뒤, 시간이 남으면 관련 이유, 예시, 습관, 경험 등을 추가 문장으로 덧붙일 수 있습니다.

ETS TOEIC 공식수험서 100만 부 돌파!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영어회화 베스트 1위
스마트폰 팟캐스트 방송 중!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시리즈

New English 900 [Vol 1-3]
-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표준영어 교재
- 900문장 자동암기 시스템으로 영어회화 마스터
구성: 본책 + 트레이닝북 + 무료 MP3 파일(해설강의 포함)
정가: 각 13,000원

New English 900 기초영문법
- 꼭 알아야 할 핵심 문법만 통문장 학습으로 마스터
-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쉬운 문법책
구성: 본책 + 무료 MP3 파일
정가: 12,000원

YBM e900.co.kr (02)2000-0515

날씨

10/24 木 일출 06:49 일몰 17:4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96.co.kr

서울 11/18 · 청주 · 대전 9/20 · 전주 · 광주 12/21 · 제주 · 강릉 12/21 · 울릉도 14/17 · 대구 · 포항 15/20 · 울산 · 부산 17/21

자몽은 통증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독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질 환자들은 날씨가 서늘해지는 계절에는 자몽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 관절 질환 가능지수 · 뇌졸중 가능지수 · 피부 질환 가능지수

자료제공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www.pdh.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스도쿠 마스터, 마음과 뇌 리더 전 지음)

드라큘라는 왜 마늘을 싫어할까?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드라큘라는 십자가와 마늘을 싫어한다. 기독교 문명권의 흡혈귀니까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마늘은 왜 싫어한 것일까?

드라큘라의 정체와 관련이 있다. 드라큘라는 영국의 소설가 브램 스토커가 루마니아를 무대로 쓴 소설 속의 흡혈귀, 즉 뱀파이어다. 동유럽에 널리 퍼진 뱀파이어 설화가 바탕이 됐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뱀파이어가 되는 것일까?

설화에 의하면 먼저 뱀파이어에게 피를 빨리면 흡혈귀가 된다.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 외에 비녀, 늑대인간이고도, 부랑아, 사생아, 자살한 사람, 복수를 못한 사람, 살인자 등도 죽으면 뱀파이어가 된다고 믿었다. 주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로 볼 것이다. 전염병을 퍼트릴 가능성이 높았던 계층이다.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역귀(疫鬼)와 비슷한 존재다.

동유럽에서는 뱀파이어를 쫓을 때면 전통적으로 마늘을 사용했다. 마늘에 나쁜 기운을 쫓는 약초 성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드라큘라의 무대인 루마니아에서는 부활절이면 마늘로 십자가를 만들어 창문을 장식하거나 집 안 곳곳에 마늘을 놓는 풍습이 있다. 가축의 우리에도 마늘을 걸고, 소에게는 마늘을 문질러주는데 마늘이 흡혈귀의 접근을 막아서 전염병을 예방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실 드라큘라를 비롯한 뱀파이어의 전설 역시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 먹으며 전염병을 퍼뜨린 것에서 비롯됐다고 하니까 드라큘라가 왜 마늘을 싫어하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드라큘라의 원형이 전염병을 옮기는 역귀였고, 모기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마늘이 그만큼 몸에 좋다는 이야기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 533-8877 www.saju4000.com

외국남자 만나 결혼하고 싶어 국제결혼 운 없으니 포기해야

셀레니 여자 78년 6월 7일 음력 오후 1시 30분 남자 81년 1월 19일

Q 장래를 생각하고 한 남자를 몇 달 만났습니다. 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더니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외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A 운이 사묘절(死墓絶) 단절운로 가고 있으므로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침금(沈金)으로 물 속에 잠긴 쇠가 되어 쓸모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남자는 싫증이나 권태를 쉽게 느끼는 타입이라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집니다. 배우자보다는 관재(官財)의 성분이 강해 애인을 더 생각하는 기질이 있고 현침살(날카로운 기운)로 인정이 없으며 저를 고생시키는 사람이니 잊는 게 좋습니다. 국적연애, 국제결혼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마지살(驛馬地殺)에 관이나 재성(財星)이 임해야 하는데 귀하는 마음만 있고 현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지 않은 귀가 얇아 남의 꼬임을 설다 낭패를 보기도 하니 평생 유념하셔야 합니다.

명퇴당한 뒤 중소기업 재취업 올해부터 직장운 좋으니 안심

쥐띠 남자 58년 1월 2일 음력 오전 3~5시

Q 중견기업에서 명예퇴직당한 뒤 최근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출퇴근 거리는 좀 멀지만 보수도 예는 적도 만족스럽고 업무도 과거에 하던 일이라 어려도 좋아합니다. 이곳이 마지막 직장이 될지 또 이직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A 청운반수(靑雲返水)를 푸른 물이 다시 돌아와 얼굴을 내밀어 실력과 권위가 뚜렷해지는 길운인데 세운(歲運)에서 정관(正官) 직장운이 56세부터 힘을 얻게 되어 현재의 직장을 잘 지켜나가게 됩니다. 커다란 나무둥지에 넝쿨이 감싸고 올라오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고단하지만 백수로 집에서 고난을 씹는 것보다는 나으니 외국어 공부하며 직장에 충실하십시오. 질투심이 지신을 돋보이게 할 수는 있으니 관권(官權)의 기세로 주변을 옹호하다 2016년에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고 구설(口舌)에 휘어 발생되기도 하니 상사와 조직에 반대하지 않도록 대인관계를 잘하십시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훌륭한 분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4일 (음 9월 20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지녀가 기쁜 소식 전한다. 60년생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끙끙. 72년생 꼬였던 일은 풀릴 거미 보인다. 84년생 어려워하지 말고 상사에게 도움 청하라.

소 49년생 몸의 사소한 이상도 가볍게 넘기지 마라. 61년생 금전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73년생 빛나는 성과로 명망 좋아진다. 85년생 잘나가는 친구 덕 보게 된다.

호랑이 50년생 음덕 베푼 선행이 알려진다. 62년생 사업이 어려워도 현실에 만족할 것. 74년생 오전엔 어렵지만 오후에는 좋다. 86년생 연인에게 감당 못 할 약속 마라.

토끼 51년생 어젯사람 허물은 모른 척. 63년생 배우자가 유쾌한 선물을 한다. 75년생 땅 즐리지 않았으면 기대하지 마라. 87년생 어려운 단보간 숨기는 것이 좋다.

용 52년생 남서쪽에서 좋은 소식 온다. 64년생 큰일이 기다리니 긴장 놓지 마라. 76년생 호기사 노릇하면 신뢰 쌓이진다. 88년생 주변 충고 받아들이면 순조여 돈.

뱀 53년생 활인약 등 대신약 꼭 챙겨라. 65년생 엿보는 선수제이 효과 좋다. 77년생 동료와 명예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조심. 89년생 영화관 데이트 대박 터진다.

말 42년생 집안에 작은 고민 생긴다. 54년생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은 멀리할 것. 66년생 정진도 과하면 욕이 된다. 78년생 움직여야 할 땐 징검다리 역할만 하라.

양 43년생 명분 있는 일은 절대 양보하지 마라. 55년생 배우자의 정직 선물에 감동한다. 67년생 몰래 거짓 여기 식탁 자들에 평원. 79년생 사람 은거는 지식미면 감현.

원숭이 44년생 가치 있는 소일거리가 생겨 즐겁다. 56년생 극욕은 넘치나 현실은 팍팍하다. 68년생 가족들의 걱정에 힘이 솟는다. 80년생 가능성 없는 일은 멀리하라.

닭 45년생 내 뜻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57년생 투자 괴 잠수 부리면 본전 어렵다. 69년생 모로 가든 도로 가든 서울만 가면 성공. 81년생 기다리면 귀인 맞는다.

개 46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하다. 58년생 바퀴 움직이나 수확은 조라하구나. 70년생 여럼을 거스르면 무리 따른다. 82년생 애정운 길하니 이성을 적극 만나라.

돼지 47년생 저 취미에 해져 하루가 짧구나. 59년생 자업자자는 큰 거래처 생긴다. 71년생 공허언 업무를 알으면 구설수 조심하라. 83년생 히든카드 쓸 기회 온다.

'3연패 여유만만' 사자 vs '우승 자신만만' 곰

삼성-두산 오늘 달구벌서 한국시리즈 첫판
"믿을맨 윤성환 컨디션 굿" "발야구의 힘"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7전4승제)에서 맞붙는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가 날선 입담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대결을 예고했다.

1차전을 하루 앞둔 23일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삼성의 최형우는 "늘 해오던 KS라 긴장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시리즈를 기다리느라 지쳤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고 상대를 제압했다.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인 두산의 유희관은 "삼성의 3년 연속 우승보다 두산이 우승하는 게 더 재미있지 않겠느냐"고 받아치며 "삼성이 3주를 쉬었다는데 우리도 3일을 충분히 쉬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규리그 다승 공동 1위(14승)임에도 개막전 두산전에서 만루홈런 두 방을 내주는 굴욕을 당했던 삼성 배영수는 "김현수와 오재원에게 올 시즌 많이 맞았는데 이제 갚아줄 때가 됐다"고 명예 회복을 다짐했다.

두산의 주장 홍성흔은 "포스트시즌을 치르면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차분하게 경기를 잘 풀었다. 삼성은 빈틈을 찾아보기 어려운 팀인 만큼 작전을 잘 짜 대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양 팀 감독들은 치열한 전략 대결로 우승을 자신했다.

삼성 류중일 감독은 "1차전 선발로 나서는 윤성환은 우리 투수 중 컨디션이 가장 좋다. 지난해 KS에서도 1차전 선발로 나서는 등 2승을 거뒀다"며 신뢰를 나타냈다.

이어 유격수 김상수와 2루수 조동찬의 부상 공백에 대해 "정병곤, 김태완으로 키스톤 콤비를 꾸리게 됐다"고 밝혔고, 두산의 발 빠른 주자를 견제하고자 투수들의 퀵 모션을 재점검했다고 말했다.

두산 김진욱 감독은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승리를 따낸 노경은을 KS 1차전 선발로 내세우겠다고 밝혔고 "체력 탓에 도루를 자주 시도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온 만큼 뛸 수 있는 선수들은 모두 뛰도록 하겠다"고 기동력 야구를 예고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웃고 있지만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 감독과 선수들이 23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우승 트로피 앞에서 밝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유희관·홍성흔, 김진욱 감독(이상 두산), 류중일 감독, 최형우·배영수(이상 삼성). /뉴시스

리디아 고 프로골퍼 GO~

아마추어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16·뉴질랜드·사진)가 마침내 프로 전향을 선언했다.

리디아 고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글과 함께 유튜브에 "프로로 전향하겠다"는 말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고보경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승을 포함해 프로 대회에서 통산 4승을 거뒀다. 최근 3년 가까이 아마추어 세계 랭킹 1위를 지켜왔고, 프로 세계 랭킹에도 4위에 올라 그가 과연 언제 프로 전향을 할 것인지에 전 세계 골프 팬들의 관심이 쏠려왔었다.

LPGA 투어 역사상 아마추어 선수 최초로 대회 2연패를 이루는 등 프로 무대에서 펄펄 날았지만 아마추어 신분이라 받지 못한 상금만 120만 달러(약 12억6000만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디아 고는 다음달 LPGA 투어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에 프로 자격으로 처음 출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LPGA 투어 회원이 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프로 전향 후 곧바로 LPGA 투어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순호기자

인삼공사 '대어' 모비스 낚았다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디펜딩 챔피언 울산 모비스를 쥐고 첫승을 신고했다.

인삼공사는 23일 경기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모비스에 85-81로 역전승 했다.

19일 고양 오리온스를 꺾고 17연승을 내달려 프로농구 최다 연승 기록을 새로 쓴 모비스는 신기록을 경신하는 데 실패했다.

한국 무대에 돌아온 아이라 클라크는 부산 KT에 2연승을 선물했다.

프로농구 전적 22일

	1Q	2Q	3Q	4Q	합계
전자랜드	9	19	22	18	68
KT	31	12	22	15	80

	1Q	2Q	3Q	4Q	합계
모비스	21	19	20	21	81
인삼공사	17	19	25	24	85

KT는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클라크가 3점슛 3개를 포함해 26점을 쏟아 부은데 힘입어 80-68로 완승을 거뒀다. /메트로기자

3연패 양학선…3관왕 사재혁

양학선과 사재혁이 23일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도마 결선과 역도 77kg급에 각각 출전해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올림픽 스타들이 부상 투혼을 딛고 전국체전에서 금빛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도마의 신' 양학선(한국체대·광주)은 23일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기계체조 남자 일반부 도마 결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5.112점을 얻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체전 도마 3연패다.

21일 기술을 점검하다가 오른발 부상을 당한 양학선은 소속 시·도인 광주를 위해 고통을 참으며 명성에 걸맞은 화려한 기술을 과시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역도 금메달을 땄지만 런던올림픽에서 팔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던 사재혁(제주도청)은 1년이 넘는 재활 끝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이날 열린 남자 일반부 77kg급에서 인상 150kg, 용상 190kg, 합계 340kg을 기록해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유순호기자

현역 은퇴 이영표 "나는 행복한 사람"

미국프로축구(MLS)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이영표(36·사진)가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2000년 안양 LG(현 FC 서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영표는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맹활약했다. 2003년 에인트호번(네덜란드)을 시작으로 토트넘(잉글랜드), 도르트문트(독일),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을 거쳐 2011년 12월부터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뛰었다.

팀의 주전 수비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표는 28일 콜로라도와의 정규리그 홈경기를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난다. 이영표는 구단을 통해 "선수 생활을 하며 내가 어렸을 때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표는 2006년 독일월드컵과 2010년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에서도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그는 은퇴 후 밴쿠버에 머물며 영어와 구단 행정을 배우고, 캐나다의 대학에서 스포츠 마케팅 공부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순호기자